

# 전국개인택시- 연합회신문

여름호 | 2018년 7월 26일

발행인 박권수 회장  
편집인 오홍열, 이성운  
발행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편집대행 (주)석유가스신문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7길 55 | 전화 : 02)557-7351~2 | 팩스 : 02)554-7359

## <박권수 연합회장 인사말>

### 정부는 차별적인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존경하는 16만여 개인택시 사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느덧 초록이 더욱 깊어져가고 불 별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은 뜨거운 태양 만큼 사업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좋은일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외 정세는 북한 핵 폐기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과 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린 6.13지방 선거 등 숨가쁜 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기간 중 우리는 택시 4개단체와 함께 자가용(카풀) 불법운송행위 및 화물자동차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을 위하여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안민석 전국직능대표자 회의 의장, 정춘숙 의원,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등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김태년 의장은 택시 업계에서

건의한 내용은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화물법'을 당차원에서 국회에서 통과 시킬 것과 카풀과 관련하여 출·퇴근 시간대를 명확히 규정 하겠다고 하였으며, 또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개인택시업계의 주장이 정당하므로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해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연합회는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택시 현안 해결과 관련하여 수시로 관련부처 방문 등과 함께 강력히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는 카셰어링(렌터카) 확대 등 차별적인 연계교통 시범 사업을 즉각 철회하여야 합니다.

지난 2018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7월중에 승합렌터카 공유 O2O 서비스, 카셰어링 확대 등 철도연계 교통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렌터카와 카셰어링은 순수 민간 영역으로 규제가 어렵지만 택시는 면허제로 운영되고 국가로부터 각종 규제와 지시를 받으며 국

가의 교통정책에 따르고 있는데도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연계교통사업에서 택시는 제외되고 있어 렌터카 및 카셰어링 경쟁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렌터카와 카셰어링 서비스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인 진단과 검증 없이 국가 기간산업에 도입,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교통안전과 생명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시범사업에 있어 검증된 교통안전과 국민에게 친숙하고 편리한 공공서비스인 택시를 중심으로 철도연계교통 시범사업을 개선하여 열악한 환경에 놓인 택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승차정원 13인승이하 승합택시를 포함한 택시를 철도연계 교통사업에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줄 것을 관련부처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급·승합대형택시 사업 구역제도 개선입니다. 승합, 고급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기

존 시·군에서 시·도 단위로 광역화함에 따라 도 단위지역의 관광 지역, 군부대 지역 등은 대형택시의 사업구역 광역화로 일부 지역으로 택시의 집중화현상이 발생하고 이외지역은 교통취약지역으로 전락하여 승객 불편이 가중 됩니다. 승차정원 13인승 이하 승합대형, 고급형택시의 사업구역을 도 단위 지역의 시·군 단위 및 면단위까지 운행할 경우 기존택시와 마찰이 예상되며 더구나 13인승 이하의 승합 대형 택시가 시장, 외래 관광객, 단체 승객을 태우고 운행 할 경우 사업구역 규제를 받고 있는 중형 택시와 충돌이 예상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던바 국토교통부에서는 운수사업자의 고급·승합택시로 편중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사업구역을 광역화 하더라도 기본적인 구역운송사업자로서의 규율을 지킬 필요성이 강조되고 또한 각 시·도에서도 관련 규칙·조례를 통해 고급·승합택시의 광역화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운송시장의



질서가 빠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하여 줄 것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연합회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당면 현안문제는 연합회와 조합 그리고 사업자여러분과 합심하여야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업계의 권익신장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사력을 다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6만 사업자의 가정에 뜻하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酒유 하셨습니까?**  
술 취한 자동차는 도로 위의 흉기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 중 13명, 한해 500명이 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마신 술 한잔에 집은 운전대는 당신을 살인자로 몰고 갑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인 동시에 자살행위입니다.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안전 종합 전문공공기관 | 교통기술 연구 개발, 운전면허시험 관리,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라디오(TBN) 교통안전방송, 도로교통환경 개선 등 도로교통안전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 및 활동을 전개하고 선진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INTERVIEW

## 국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경기 성남시수정구)



# 6·13 선거! 압도적 지지에 감사!

개인택시 현안문제 근본 부터 해결할 터  
카풀 공유, 화물차 불법 운송행위, 카드수수료 문제 적극 해결!

**Q** 전국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전국 16만4천 개인택시사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발이 되어주시는 전국 16만4천 개인택시 사업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선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이 잘해서 받은 결과라 자만하지 않고 더 잘 하라는 회초리로 무겁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튼튼하고 강력한 지방정부를 토대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지 내년이면 헛수로만 100년이라고 합니다.

택시의 역사가 우리의 근현대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도입되어 자동차산업 부흥기를 이끌었다 하면 영화 '택시운전사'처럼 택시기사님들은 우리 역사의 한복판에서 민주화운동의 가장 큰 목격자이자 조력자였습니다.

택시는 우리나라 대중교통체계에 있어 중요한 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 중 택시 이용 비중이 약 18%에 이르고 국내 여객 수송분담률도 9%에 달합니다.

하지만 산업구조가 바뀌어 가면서 택시업계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듯 합니다.

당장의 위협은 아니지만 자율주행차가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고 높은 수송분담률에 비해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4차산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카풀 공유자동차가 적절한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편법으로 운영되며 택시업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민생의 거울입니다. 택시면허는 국가가 사업권을 인정하되, 요금체계를 비롯해 정책적으로 규제를 강제할 수 있는 국가가 보장하는 면허인 만큼, 앞으로의 변화에서 택시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신경쓰겠습니다.

**Q** 20대 국회 전반기가 끝났는데, 후반기 이슈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A** '개똥벌레'를 부른 가수 신형원의 노래 중에 '서울에서 평양까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 중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 요금 오만원, 광주보다 더 가까운 평양은 왜 못가'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390km, 광주까지는 270km입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250km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남·북 단일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바라보며 노래가 사처럼 이제 더 이상 평양이 못가는 곳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개혁개방이 본궤도에 올라서고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과거 개성공단 수준의 경협이 아니라 북한에 택시타고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협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주 속도감 있게 빠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도 앞으로 2년, 우리 한반도 신경제,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 가릴 것 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Q**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를 해결할 전략이 있으신지요.

**A** 요즘 미·중 무역전쟁에 유가상승까지 우리 경제가 워낙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길게 가진 양을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잘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기업에 대폭 자금 지원해주고 세금 깎아주는 경제정책이었다면 지금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이제 모든 국민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산다는 정책입니다.

그간 소득이 뺏겨서 지출을 못해온 국민들 또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이 어려웠던 국민들, 이분들에게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도 늘어나고 택시를 포함한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늘어날 것입니다.

자영업자가 살면 기업도 삽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지고 법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

이 결국 경제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정한 룰입니다.

카드수수료가 대표적입니다.

대형마트와 같은 매출이 큰 가맹점에 낮고 매출이 적은 자영업자들에게 높아 지나치게 역진적입니다.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최고 카드수수료는 2.5%인데 반해 대기업 가맹점은 1.5% 이하에서 책정됩니다.

택시업계 상황은 갈수록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비율은 해마다 늘어 70%에 육박하면서 카드수수료 부담이 너무 커졌습니다.

택시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대금정산을 하기에 자영업자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지 못하고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개인택시사업자분들께 격려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택시 운전자분들의 목소리가 민생의 거울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항상 경청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활기차게 만들어 여러분 모두 일할 맛 나는 세상 만들어보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리·전국개인택시연합회 기획부장 김도길)

## Profile

### 김태년 국회의원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
- 2004 ~ 2008.5 제17대 국회의원
- 2008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2012.5 ~ 2016.5 제19대 국회의원
- 2016.5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성남시수정구)
- 2017.5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 택시 4개 단체, 자가용(카풀)불법 운송행위 근절!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 등과 간담회 가져  
 법인택시·택시노조연맹·민주택시노조연맹 등과 공동 개최  
 화물자동차 불법 여객운송행위 근절도 강력 건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권수)가 택시 4개 단체와 공동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가용 카풀 불법 운송 행위 근절을 촉구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신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은 지난 5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안민석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 정춘숙 의원, 김일한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가진 것.

이성운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무이사의 정책건의서 발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연합회는 택시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자가용(카풀)불법 운송행위 근절, 화물자동차 불법 여객운송행위 근절을 강력 건의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장은 '연합회에서 건의한 두 가지 내용은 택시업계의 입장이 타당성이 크다'고 보고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화물법'을 국회에서 통과 시킬 것과 출·퇴근 시간대를 명확히 규정 하겠다고 밝혔다.



▲ 개인택시연합회 회장단이 더불어민주당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 역시 개인택시업계의 주장이 정당하다며 금융당국과 협의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탄생에는 택시업계의 공헌이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카풀 문제는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하도록 하고 민홍철 의원 발의안은 당 차원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민석 의장은 택시업계의 구조적인 문

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개인택시연합회 박권수 회장은 '업계에서 건의한 내용들은 여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며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법인택시연합회 박복규 회장은 택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박권수 연합회장이 간담회에서 카풀 불법운송행위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구수영 위원장은 지금 택시노동자는 법인·개인 모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어 택시와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인식을 같이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마무리 발언으로 김태년 의장은 획기적인 택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하고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글·전국개인택시연합회 기획부장 김도길〉

## 우리조합 NEWS

## 부산 조합

## 부산개인택시조합 15대 사령탑에 김호덕 이사장 취임

‘열린 조합’ 추구, 이사장실 완전 개방해 문턱 낮춰

‘택시감차 소요 재원 정부·지자체 전액 부담해야’

독단적 정책 결정 없도록 내부적 견제 장치도 마련키로



부산개인택시조합 15대 사령탑으로 김호덕 이사장이 취임한 가운데 조합 임원진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부산개인택시조합은 지난 2일 오전 11시 조합 대강당에서 ‘제15대 이사장 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진복·최인호 국회의원,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연합회 회장, 서

돌식 이사장을 비롯한 정창기 이사장, 김정근 이사장, 백형선 이사장 등 영남권 개인택시조합 이사장과 조합원 등 6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호덕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선거 기간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제한 뒤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

은 뜻을 겸허히 받들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임원진 구성, 불합리한 정관 개정

김호덕 이사장은 조합 현황 파악을 비롯해 업무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조합은 지난 9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제15대 임원진 구성을 완료했다.

또한 불합리한 정관 일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등 김호덕 이사장이 추구하는 변화를 뒷받침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열린 조합’을 위해 직무를 보는 이사장실을 완전 개방해 문턱을 낮추고 조합의 주요 정책은 조합원들의 뜻을 물어 결정해 정책의 실행도를 높이면서 조합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

주요 정책이 독단적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내부적 견제장치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신고절차를 거친 뒤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개인택시면허 조건을 바꾸는데 역



▲ 부산 조합 김호덕 이사장

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택시발전법에 근거해 추진하는 택시 감차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이사장은 “개인택시업계가 택시 이용승객 감소와 법인업계의 리스제 도입 추진, 고령자 자격유지검사 실시 등 택시 영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과거 40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욱 중요한 만큼 이사장 선거 때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공약은 우선 순위에 따라 하나하나 추진해 개인택시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우리조합 NEWS

## 광주 조합



▲ 명예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중인 광주개인택시조합 이길로 이사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진식 전당장 직무대리.



▲ 광주개인택시조합 이길로 이사장과 조합원들이 현장해설과 함께 ACC 5개원을 둘러보고 있다.

## 광주 개인택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명예홍보대사 위촉

전당을 찾는 시민과 방문객들의 연결고리로 ACC 활성화 기대

지난 7월 11일 광주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측과 명예홍보대사 위촉식을 거행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광주개인택시조합 이길로 이사장과 38명의 조합원이 함께 참석하여 ACC 투어, ‘아시아의 타투’ 전시관람, 명예홍보대사

위촉 등의 일정으로 추진되었으며 ACC 투어는 현장해설과 함께 ACC 5개원(문화정보원, 어린이문화원,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민주평화교류원)을 둘러보는 코스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광주를 찾는 방문객들과 시민들을 가장 먼저 접하며 친절한 해설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승객과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먼저 ACC에 대

한 이해도를 높이고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시민들에게 ACC를 널리 알리고 안전하고 친절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위촉식은 옛 족자를 연상케 하는 위촉장과 함께 ACC 공연 및 전시 할인혜택이 가능한 명예홍보대사증을 수여하였다. 또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참석자들은 위촉기간인 2018년 7월 11일부터 2019년 7월 31일

까지 ACC 공연 및 전시 할인혜택을 받게 되어 지속적으로 ACC를 방문하고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이번 행사를 통해 ACC 내부를 둘러볼 기회가 적었던 개인택시사업자들의 이해를 높임으로써 ACC와 방문객들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개인택시 명예홍보대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ACC 방문이 활성화되고 지역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전당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D**ata **B**ased **D**igital **B**ased

**DEEP** 당신에게 DEEP

**Data**를 베이스로 **Digital**을 베이스로  
당신에게 **DEEP**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고객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기술!  
이제 신한카드의 빅데이터는 DEEP으로 진화한다!

## 우리조합 NEWS

## 경기 조합

## 운수종사자 직무보수교육, 경기도개인택시조합 자체 교육시간 편성!!

경기도 개인택시 업계 현안, 조합원들과 직접 소통  
지역 실정 맞는 효과적인 교육 가능

경기도개인택시조합 김영식 이사장은 경기도개인택시의 현안문제와 공제조합의 교통사고 안전예방 교육 등 경기도개인택시 조합원에게 필요한 특성화된 교육 뿐 아니라 업계 현안 문제를 조합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운수종사자 직무보수교육 과목에 경기도개인택시조합 자체교육과목을 편성하여, 경기도개인택시조합 이사장과 시·군조합장이 조합원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과 사고 예방에 관한 문제점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자체교육 시간 편성을 계기로 경기도개인택시 조합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시·군간 의견을 조율하여 우리 경기도 조합원의 의견이 택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운수종사자 직무보수교육시간에 경기도개인택시조합 자체교육시간을 편성하여 조합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김영식 이사장



▲ 좌측부터 장덕희 화성시조합장, 경기도개인택시조합 김영식 이사장, 김상철 오산시조합장, 안민석의원(오산), 김태년의원(성남), 조정식의원(시흥), 조석제 시흥시조합장, 김성중 성남시조합장, 박종근 성남시지부장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의 간담회

자가용 불법 운송행위 (카풀) 근절 등 건의

5월 29일 경기도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및 시·군조합장은 주요 택시업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택시업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원장, 안민석 직능대표자회의 의장,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경기도개인택시조합 김영식 이사장은 자가용(카풀) 불법 운송행위 근절 건의, 5인승 픽업트럭의 화물자동차 불법 여객운송행위 근절 건의, 개인택시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율(0.8%) 적용, 개인택시 대리운전 기준 완화 등을 적극 건의 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개인택시 업계의 현안문제가 조속한 시일내 해결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 우리조합 NEWS

## 전북 조합

## 전북개인택시조합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실시

도내 14개 시군 순회하면서 캠페인 진행

택시운전자에게 물 및 드링크 전달하고 안전운전 당부

전북개인택시조합(이사장 박상익)은 지난 6월 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전주에서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롯데백화점, 경기장, 대자인병원 사거리에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주개인택시운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지선

지키기와 안전띠 착용에 대해 중점 계도 활동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교통안전에 대한 주민의식 고취와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홍보전단을 배부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등교시간까지 적극적인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한 캠페인후 박상익 이사장은 택시승



강장을 찾아 택시운전자들에게 물 및 드링크를 전달하고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등 여름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했다.

## 범죄에 따른 택시운전자격 및 사업면허 취소

개인택시운전자가 성범죄 및 특정범죄를 범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제1항 단서, 제3호 에 해당되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단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범죄 및 특정범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자격시험일 전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택시운전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인택시가 운행 중 위와 같이 성범죄 및 특정범죄를 저질러 형을 받을 때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이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간혹 일부 조합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제1항의단서만 보고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기준으로만 알고 있으나, 개인택시를 운행하면서 위와 같은 범죄를 범할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범죄로 택시운전자격 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제1항 제37호에 의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택시운전자격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개인택시 사업면허까지 취소토록 되어, 한순간의 범죄로 절망과 실의에 빠진 조합원을 종종 볼 수 있다.

범죄 또한 택시를 이용한 경우에만 개인택시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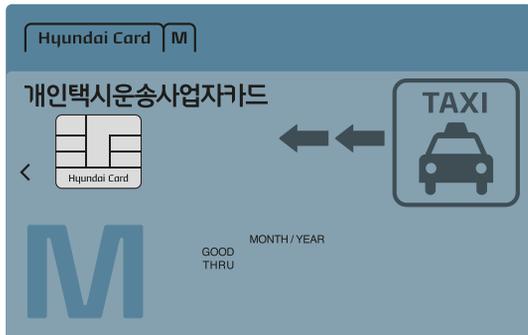
알고 있으나 성범죄 및 특정범죄는 택시운전자격 취소 및 택시를 이용한 범죄와 관련 없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택시를 운행하던 하지 않던 간에 모든 범죄를 범하여 처벌받을 때는 개인택시 사업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항상 안전운행과 성실한 생활 자세로 살아가는 할 것이다. 성실한 삶이야말로 개인택시 직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행복한 삶을 영유하는 것이다.

〈전북조합 제공〉

# 현대카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전용카드

## LPG 면세 및 보조금 혜택



현대카드M-개인택시(유류)  
국내전용 연회비 없음

### 주요 혜택

LPG 충전 시  
면세 및 보조금 혜택



SK충전소에서  
LPG 충전 시  
1% M포인트 적립



종합건강검진  
예약 시  
40~60% 할인

· 전국 130여 개  
건강검진센터



국내 가맹점에서  
0.5% M포인트  
적립



### 신청 방법

현대카드 제휴전화번호(1577-6982 > 3번 개인택시) 또는 전국 개인택시 시도 조합에서 신청서 작성

### 유의사항

- LPG 면세 및 보조금 혜택은 일 4회 한도, 부제일 이용 건 및 1회 충전 한도량 72리터 초과 시 지급 제외
- LPG 리터 측정은 국세청 및 국토교통부 기준이며, 보조금 혜택 기준은 국토교통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 종합건강검진은 온라인메드 홈페이지(www.onlinemed.co.kr) > 파트너 고객 예약 또는 상담센터(1566-7775) 통해 예약 후 이용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연회비, 제수수료, 이자, 지방세·국세 등 세금 납부액, 도시가스요금, 초·중·고교 학교납입금, 대학·대학원 등록금 납부 결제건, 자동납부서비스 이용수수료, 당사의 모든 할인서비스 및 무이자할부 이용금액은 M포인트 적립 제외

상세 혜택 및 이용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카드 신청 전 현대카드 홈페이지(www.hyundaicard.com) 및 상품설명서, 약관 참고  
카드 이용대금 연체 시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 3%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회원별, 이용 상품별 차등 적용/법정 최고금리 24% 이내)

단, 연체 발생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

- 일시불: 거래 발생시점 기준 최소 기간(2개월)의 유이자할부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 3%
  - 무이자할부: 거래 발생시점 기준 동일한 할부 계약 기간의 유이자할부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 3%
  -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 대출 기준)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여신금융협회의필 제2018-C1g-08779호(2018.07.18)

개인택시조합  
라이브 인터뷰

대구 개인택시조합 정창기 이사장

# ‘조합원 주신 돈이 월급, 그분들 위해 무엇 할 것인지만 고민’

타이어교체·미터기 수리 등 소모 경정비 직영 체제 구축 추진  
조합원 차량 양수도 중간 단계 없애 적정 가치 형성할 것  
요금 인상 꾸준히 요청중, 심야·시계 할증 현실화 모색  
승객 안전·편의 위해 승터·승강장 확대 절실, 지자체에 건의



대구개인택시조합  
정창기 이사장

정창기 이사장은 보궐선거에 당선돼 대구개인택시조합 지휘봉을 잡았다.

지난 3월 취임했으니 이제 수개월 지났을 뿐이다.

이사장에 당선되기 이전에는 대구 남달서 지부장을 지냈다.

지부장은 조합 이사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선출직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출직에 출마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전임 이사장께서 더 이상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서 보궐 선거가 치러졌는데 개인택시사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합의 역할을 잠시라도 비울 수 없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더 큽니다"

이사장에 당선되기 직전까지 맡았던 대구 남달서 지부장 시절에는 교통 사고 현장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다.

공제조합 소속 전문가들도 있지만 조합원 사고 현장에 달려가는 일이 항상 먼저였다.

"지부장을 맡으면서 교통사고 처리를 누구보다 잘했다고 자부합니다. 지부장은 조합원 회비로 월급을 받는데 그분들을 위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지부장이라는 직책 이전에 똑같은 개인택시사업자라는 시각에서 조합원들의 교통사고 현장을 바라 보니 사고 처리에서부터 책임 소재를 가리고 보상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조그마한 불이익이라도 받지 않는 방법을 찾아 낼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합 이사장에 취임한 지금도 매일 조합원들의 교통사고 내역을 보고받는다.

사고 처리 과정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이고 처리 결과에 불만이 있는지 여부를 조합원들에게 확인해 해소시키려고 노력한다고 정창기 이사장은 말했다.

#### ◆ 적정한 택시 광고 수익 확보 방안 마련중

대구조합 산하 개인택시가 총 1만58대에 달한다.

택시 연료인 LPG를 판매하는 조합 직영 충전소도 4곳을 운영중이다.

하지만 이중 한 곳 만 조합 소유이고 나머지 3곳은 임차 업소이다.

직영 LPG 충전소가 늘어나면 조합원이 주주로 참여해 연료비용 지출을 낮출 수 있고 충전소 보증금과 임차료로 지불되는 돈을 조합원들의 판매 수익과 배당으로 되돌려 줄 수 있다.

하지만 직영 충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직영 LPG 충전소 확대 등 예산이나 시간이 많이 필요로 사업 보다는 임기내 실현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구상중이다.

보궐선거에 당선된 탓에 이사장 임기는 2020년 말까지 2년 반 정도가 남아 있어 호흡이 긴 사업을 구상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택시에 반드시 필요한 소모품인 타이어를 교체하거나 미터기 수리 같은 간단한 정비 작업은 조합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를 대량으로 구매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고 미터기 수리도 직접 수행하게 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직영 업소가 없어 현재는 외부 매장에 맡겨야만 합니다. 임기 중에 간단한 정비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 직영 매장을 갖추려고 합니다"

조합원들이 개인택시 외부 광고 비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일반 대행사들을 통해 택시 광고를 유지하는데 업체가 난립하다 보니 광고 단가가 떨어져 타 지역에 비해 조합원들의 광고 수익이 적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 대행사를 선정해 적정하게 택시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 ◆ 심야 승차 권리 보장 위해서라도 요금 조정 필요

대구 개인택시 업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요금 인상 문제이다.

2013년 이후 동결되어 있는 택시 운임을 조정해달라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요청했는데도 부산시에서 먼저 인상 조치가 이뤄졌고 대구시에서는 아직 답이 없다.

이와 관련해 정창기 이사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에 법인택시업계와 공동으로 대구시, 시의회에 빠른 시일 내 택시요금을 조정하도록 요청중이다.

"유류비를 비롯한 각종 물가는 인상되고 있는데 택시업종의 생산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면서도 택시 요금 결정 과정에서는 대중교통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택시 요금 조정 주기인 3~4년이 지난 만큼 대구시와 의회에 현실적인 적정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구조합에서 희망하는 요금 인상 방안은 심야·시계 할증률을 현행 20%에서 40%로 늘리고 두 운행 조건이



결절 경우 복수 할증을 적용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도 오후 11시에서 오전 5시까지로 늘려달라고 주문중이다.

심야 시간대에 장거리 시외 지역을 운행할 때는 안전, 운행 피로 등을 감안해야 하는데 택시사업자에게만 일방적인 의무가 따른다는 것이 정창기 이사장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정창기 이사장은 “승객을 거부하면 택시사업자들만 승차 거부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심야 시간대에 시외 먼 거리 운행을 원하는 고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택시 사업자에게 적절한 운임을 보장해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블랙박스·영상기록장치 설치 비용 지자체 지원 요청

택시 사업자 안전 운행이나 복지와 관련해 대구시의 다양한 지원을 이끌어내고 확대하는데도 집중하고 있다.

일명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택시영상기록장치의 교체 시점이 돌아 오고 있는데 비용 일부를 지원받는 방안을 대구시와 협의중이다.

대부분의 개인택시사업자들이 블랙박스를 장착한 시점이 2011년 경으로 이미 노후화되어 있으며 현재 디지털 형태의 화상도가 좋은 다채널 제품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체 비용중 절반 정도를 대구시 예산으로 지원 받는 방안을 추진중인데 가능하면 택시 측면과 후방 등의 영상도 기록 가능한 다채널 제품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버스에는 차선이탈방지장치가 의무 장착되고 있는데 택시 역시 승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창기 이사장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개인택시에도 차선이탈방지장치 설치를 지원해줄 것을 대구시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쉼터 확대는 택시 사업자의 건강은 물론이고 승객 안전 확

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시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현재 4곳 정도의 택시 쉼터를 구축, 운영중인데 개인택시사업자들의 동선과 상당 거리 떨어져 이용률이 크게 저조한 상태다.

심지어 어린이대공원 같은 놀이공원에 쉼터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쉼터는 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눈을 붙이면서 피로를 풀고 간단한 운동이나 화장실 용무 등도 같이 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당장 졸립고 용변도 해소해야 하는데 승객도 없는 외진 곳에 설치된 쉼터를 일부러 가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구시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접근성이 좋은 위치해 택시쉼터가 조성돼야 하고 그 수도 늘려야 하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 시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니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해 수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택시사업자들이 승객 이동이 많은 곳에서 편안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택시승강장을 확대해달라고 대구시와 산하 지자체에 꾸준히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 ‘이사장 이전에 똑같은 개인택시 사업자’

임기내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고 정창기 이사장은 덧붙여 말했다.

일반 중개상을 통해 이뤄지는 개인택시 양수도를 조합이 직접 맡아서 하는 것이다.

“개인택시면허 양수도 가격이 대당 5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나이 드신 조합원들이 택시 사업을 그만두고 나갈 때 받는 일종의 퇴직금 같은 것인데 수십년을 택시 사업에 몸담은 가치로는 크게 부족한 금액입니다. 자동차

1. 정창기 이사장 취임식 장면.
2. 정창기 이사장(사진 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6.13 지방선거에 앞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한 모습.
3. 6.13 지방선거에 앞서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현 대구시장, 사진 오른쪽)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정창기 이사장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4. 정창기 이사장(사진 왼쪽)이 6.13 지방선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상사 등을 통해 양수도가 이뤄지면서 적절한 가치가 형성되지 않고 있고 중간 수수료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합은 비영리단체인 까닭에 택시 사업권 양수도 업체를 직영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자를 만들어 조합원 차량을 직접 양수도해 적정 가치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하는데 내년 중으로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주문했는데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조합원들께 거창한 계획을 늘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행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지만 저도 개인택시사업자의 한 사람입니다. 조합원들께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를 내놓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정창기 이사장은 조합원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중인 프로젝트가 현재 성사 단계에 있다고 귀띔했는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조만간 조합원들에게 공개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말과 구호 보다는 행동 그리고 실천을 중시하는 정창기 이사장의 업무 스타일이 인터뷰 내내 여러 군데서 묻어 나왔다.

(글·김신)

개인택시조합  
라이브 인터뷰

울산 개인택시조합 백형선 이사장

# ‘조합 주인은 조합원’ 복지충전소 이익금 리베이트 모두 환원

임기내 직영 충전소·정비점 구축 기대, 비용 절감하면 조합원 수익  
택시는 공공 운송 수단, 통신료·제복·영상기록장치 등 시 지원 확대  
울산시 설득해 중단됐던 모범조합원 해외 연수 부활, 28명으로 인원도 확대



울산개인택시조합  
백형선 이사장

재 충전소를 이용하는 조합원 고객들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합원들을 대신해 충전소를 운영하는 대표일 뿐이고 조합원이 충전소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수익금 모두를 되돌려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복지충전소를 이용하는 조합원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했던 것이 판매장려금으로 해석되며 추징당한 세금을 돌려 받자 충전소 이용 조합원들에게 다시 환급해 주기도 했다.

“복지충전소를 이용하는 조합원들에게 가격 할인 방식으로 리터당 60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는데 세무서에서는 판매장려금으로 해석해 2억6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추징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조세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하면서 부당하게 청구된 세금 모두를 되돌려 받았는데 지난 해에 조합원들에게 이용 실적에 맞춰 다시 배분해드렸습니다”

택시 미터기 수리는 조합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봉인 교체 같은 간단한 작업은 무상으로 진행하고 대폐차할 때만 비용을 청구한다.

요금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가 울산조합 이사장에 처음 당선된 2005년에 조합 직영 미터기 수리 업체를 만들고 시로부터 공식 검정기관으로 인정도 받았습니다.

미터기는 택시 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장치인데 조합에서 직영하면 조합원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조합에서 2명의 전문가를 채용해 운영중인데 간단한 작업 비용은 청구하지 않고 대폐차 과정에서만 비용을 받습니다. 비용도 이사회를 통해 결정합니다”

◆ 통신 수수료·블랙박스·갓등 교체에 시 지원 이끌어내

택시는 공공 운송 수단이라는 것이 백형선 이사장의 지론이다.

따라서 택시 운송이나 사업자 복지와 관련해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며 조합과 이사장의 역할은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 일환으로 택시요금 카드결제 통신비 전액 지원을 울산광역시로부터 이끌어 냈고 차량용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 교체 비용도 60%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 받았다.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개인택시사업자들도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인데 많게는 매달 1만원이 넘는 통신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이중 약 80%는 울산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울산시에 증액 지원을 꾸준히 요청했고 지난 해 부터는 통신비 전액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교체 작업도 울산시 지원을 이끌어 내며 지난해 완료했다.

전방과 실내 영상을 기록하는 2채널 풀 HD(Full HD)영상 블랙박스를 선정해 3617명의 조합원중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2835대의 차량에 교체 설치한 것인데 해당 설치 비용 18만원중 9만원을 울산시가 보조했다.

지난 해 개인택시 사업자의 블랙박스 교체에 울산시에 지원한 예산만 2억5515만원에 달한다.

개인택시 부제 표시 스티커와 갓등 교체 예산도 울산시 지원을 이끌어 내면서 현재 교체 작업이 진행중이다.

전체 조합원들 대상으로 지원되는데 비용 전액이 울산시 예산으로 이뤄진다.

◆ 시에서 지원하는 운전 제복, 여성사업자는 여성 디자인으로!

개인택시 사업자의 안전과 복지에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

대표적인 것이 조합원 제복 지원 사업이다.

울산 개인택시사업자들은 울산시로부터 매년 한 벌씩의 운전자 제복을 지원받아 왔다.

그런데 한 벌로는 세탁 이후 착용이 쉽지 않다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제기되면서 올해는 두 벌을 지원받게 됐다.

그 과정에서 운용의 묘가 돋보였는데 울산시에서 개인택시사업자와 법인택시 운전자에게 매년 한 벌씩의 와이

한 달에 1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둘 수도 있다.

울산 조합에서 운영하는 두 곳의 LPG 복지충전소가 조합원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가 그렇다.

하지만 백형선 이사장은 복지충전소를 이용하는 조합원 리베이트를 지난 해에 더 올렸다.

LPG 1리터를 구매할 때 60원씩 지급하던 리베이트를 80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한 달에 조합원들에게 지급되는 리베이트가 1억원을 넘습니다. 일년으로 따지면 십수억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난 해 부터는 리베이트를 리터당 20원씩 더 올려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운영하는 복지충전소에서 이익을 내고 그 돈을 모아 둘 이유가 없습니다. 현

셔츠를 지급하던 것을 격년제로 한 쪽 업계에 두벌씩 지급하는 것으로 바꾼 것.

지난 해는 법인택시 업계에 양보했고 올해는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두벌의 와이셔츠 제복을 지원받게 된다.

획일적인 사이즈에 따른 조합원들의 불편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재원으로 지급되는 와이셔츠 사이즈가 대, 중, 소로 획일화되다보니 특히 체형이나 여성 조합원들은 볼품 없는 제복을 지급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성 개인택시사업자들이 140여 분이나 되는데 남성 와이셔츠를 지급하고 착용하라고 하니 옷이 제대로 맞을 리가 없지요. 남성 조합원들 중에서도 목이 굵거나 팔이 길거나 하는 등 개인별로 체형이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9~10월 경부터 제복을 지급하게 되는데 올해 부터는 선정 업체에게 여성조합원이나 특히 체형 남성 조합원들의 맞춤형 제복 제작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울산시에 올해 개인택시사업자 제복 지원에 투입하는 예산은 1억8000만원이 넘는다.

◆ 모범 조합원 해외 연수 부활, 대상자 선정 투명성 확보

개인택시 모범 조합원 해외 연수를 부활시킨 것도 백형선 이사장의 세심한 조합 경영 사례로 꼽힌다.

울산시는 당초 근로자 복지 지원을 명분으로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만 해외 연수 사업을 추진했는데 개인택시도 울산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로자라는 백형선 이사장의 적극적인 주문으로 연수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사라졌고 백형선 이사장이 조합 이사장에 재당선되면서 울산시에 요청해 올해 다시 부활됐다는 것이 조합측의 설명이다.

울산시는 올해 부활한 개인택시 모범 조합원 해외 연수 예산으로 총 20명에게 1인당 200만원 씩 4000만원을 배정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형선 이사장은 해외 연수 조합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더 많은 조합원들이 연수 기회를 갖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해외연수 기회가 사라진 배경중 하나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일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연수가 부활되면서 조합 임원과 대의원들이 각각 한 명씩의 대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꾼 이유입니다. 이사장인 저조차도 연수 대상자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1인당 연수 비용 지출을 낮춰 당초 울산시에서 책정한 인원 보다 더 많은 조합원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된 것도 과거에 비해 달라진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해외 연수에 나설 조합원은 28명으로 늘었다.

◆ 택시 요금 인상 연내 긍정적 결론 기대

승차 요금 인상 여부가 전국 전 택시 업계의 관심거리인데 울산시에서도 연내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백형선 이사장은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에서 택시요금 인상 타당성 등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선출된 울산광역시시장에게도 요금 인상 필요성을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시장이 선출된 지 얼마 지나



1. 백형선 이사장이 울산 브랜드 택시인 태화강콜의 활성화를 위해 운행자 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 백형선 이사장이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울산 개인택시 축구 연합회장기 대회에서 격려 인사를 하는 모습.  
3. 정부의 택시 자격유지검사 제도에 반발해 백형선 이사장을 비롯한 조합 관계자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다.

지 않아 아직 면담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정무부시장 등을 통해 택시요금 인상 필요성을 꾸준히 전달해왔고 선거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신임 시장에게 택시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전달했다”며 연내 택시 요금 인상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백형선 이사장은 밝혔다.

임기중에 꼭 이루고 있는 사업을 묻는 질문에는 조합 직영 충전소와 정비업소 건설을 꼽았다.

직영 사업장이 마련되면 조합원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를 구매하고 차량 정비를 받는

과정에서 원가 수준의 저렴한 가격과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형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조합 대의원들이 지지해 준다면 건축 허가 등의 과정에서 시의 협조를 이끌어 내어 직영 충전소와 정비 사업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임차 운영중인 충전소 임대료나 정비 수수료 등을 절약하면 조합원들에게 모든 이익이 환원돼 결과적으로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김신)

지부  
탐방

## 대구조합 북·서·중구 지부

조합원 교통 사고 현장 직접 찾아  
불이익 최소화 노력택시승강장 확대 필요성 높아 관할 지자체에 적극 건의중  
조합원과 소통이 중요, 자주 만나고 다양한 의견 청취대구조합 북·서·중구 지부  
차용호 지부장

업무 파악도 아직 마치지 못한 상태다.

대구광역시 북·서·중구 지부장을 맡기 이전에는 다른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개인택시사업자의 길만 걸어 왔다.

불과 몇 개월전까지만 해도 조합과 지부에 속한 평범한 조합원이었던 것이다.

이 곳 지부에 속한 조합원 차량수는 2274대에 달한다.

지부 회원들과 소통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자체를 포함한 행정 관계자들을 만나 조합원들의 애로를 전달하고 민원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생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서비스 마인드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조합원들이 지부의 주인이고 조합원 회비로 월급을 받는 만큼 조합원들의 심부름꾼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마음가짐이면 못할 일이 없다는 차용호 지부장의 설명이다.

“개인택시 조합원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지부 역할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부가 소속된 조합 차원에서 대구시 등 광역 단체에 건의하고 협의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사안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부 회원들의 애로나 건의 등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조합과 이사장님에게 전달해 광역 단체 행정 등에 반영되

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지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부 사무실은 조합원들의 쉼터 되어야

지부는 택시계량기업체의 공간 일부를 빌려 사무실로 사용중이다.

계량 수리 등을 위해 업체를 찾았다 지부를 들르는 경우가 잦을 수밖에 없다.

지부장으로 취임한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사무실을 찾는 조합원들이 잠시라도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커피, 자양강장제 등 조합원들의 취향에 맞춰 목을 축일 수 있는 음료는 떨어지지 않게 구비해놓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생업인 택시 운전을 하면서 생긴 어려움이나 불만, 건의는 물론이고 소소한 일상까지 들어주는 것도 지부장의 가장 큰 역할중 하나다.

“지부 사무실은 복덕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이 편하게 들려 답소를 나누고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털어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무실을 방문하는 조합원들의 말상대가 되려고 하고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받는 기회로도 활용합니다”

차용호 지부장이 최근 주목하는 조합원 민원은 택시승강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고객이 몰리는 곳에 택시 승강장이 마련돼야 하는데 구청 등 행정관청에서 수용하지 않으면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조합원들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차용호 지부장은 지부 관할인 북구 등 3개 구청을 쫓아 다니며 ‘고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전용 승강장을 만들면 탑승객 역시 택시를 찾아 다니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며 설득중이다.

지부장에 취임한 이후 교통사고시 처리나 공제 등에 대한 공부에도 몰두하고 있다.

대구공제조합에서 전문가가 파견되어 있지만 조합원들이 교통사고 등을 당하면

현장에 직접달려가 사고 수습 등을 도와주려 하기 때문이다.

“운전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사고를 당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사고 처리에 미숙하면 보험 처리 등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제조합 전문가가 현장에 출동하기도 하지만 같은 개인택시사업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또 다른 해법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지부장을 맡은 이후 사고 현장을 직접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맡아 관리하고 행정을 처리해본 경험이 없다는 차용호 지부장은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말한다.

“조합원들에게 항상 웃고 소통하려 합니다. 소주 한잔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기울이고 조합원께서 무엇을 어려워하고 어



▲ 차용호 지부장이 지부 사무실을 찾은 조합원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있다.

떤 일이 해결되기를 희망하는지 더 자주 들어 보려고 노력합니다”라고 말하던 차용호 지부장은 사무실을 찾은 조합원에게 눈이 띄자 어느새 건물 밖까지 마중나가고 있다. (글·김신)



▲ 지부를 찾은 조합원을 반기는 차용호 지부장



▲ 지부 사무실은 계량 업체 건물에 입주해 있어 조합원들의 방문이 잦다.

동아리 탐방

울산푸름산악회

# 산행, 잘 타거나 못타거나 서로 이끌어주는 매력 크다

발족 1년만에 회원 수 78명, 매일 원정 정기 산행  
내외부 찬조로 쌓인 적립금으로 해외 여행 계획중



▲ 울산 푸름산악회 이등락 회장

‘경찰공무원으로 적지 않은 연금이 나오는 터라 돈을 버는 게 절실한 것이 아니었지만 무언가 할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취업 취업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개인 택시 사업이 맞춤이다 싶었다.

면허를 따기 위해 회사 택시 운전대를 3년간 잡았고 면허를 획득해 개인택시 사업자가 됐다’

울산 개인택시사업자 등산 모임중 하나인 푸름산악회 이등락 회장이 택시 사업에 발을 디딘 계기이자 등산 동아리를 만들게 된 출발점이 그렇다.

“회사 택시를 몰며 1차제로 5일 운전하고 하루 쉬는 것을 3년간 반복했는데 정말 힘이 들더군요. 한 평도 안되는 좁은 공간에 갇혀 하루 종일 고객을 실어 나르는 것은 균중속의 고독 그 자체였지요. 개인택시 면허를 획득해 이를 일하고 하루 휴식할 수 있게 되면서 회사 택시 때 보다 몸은 편해졌지만 하루에 최소 18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아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택시를 몰다 보

면 나중에는 말도 하기 싫을 정도였다.

노후 설계로 개인택시사업을 바라보던 모습과 현실은 크게 달랐다.

택시 운행이 없는 하루라도 툭툭 털고 산에 올라 좋은 공기 마시고 동료 사업자들과 세상 사는 얘기 나누는 즐거움을 갖자고 모임을 만든 것이 지난 해 5월의 일이다.

지난 해 5월 산악회 모임 발족 당시 27명이던 정회원은 현재 42명으로 늘었고 간헐적으로 동행하는 비회원 개인택시사업자까지 포함하면 총 78명이 참여하고 있다.

◆ 동호회 내 소그룹, 가까운 산행도 동행

푸름산악회는 매일 한 차례씩 단체 산행길에 오른다.

비번인 날 버스를 대절해 당일 일정의 원정 산행에 나선다.

올해 들어서 영주 소백산, 해남 두류산을 다녀 왔고 이달에는 봉화 옥석산을 찾았다.

산행 코스는 약 3~4시간 거리로 맞춘다.

산을 잘 타는 회원도 있지만 익숙하지 않는 회원도 감안해서이다.

나머지 휴무일에는 회원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근거리 산행에 나선다.

특히 거주지나 연령에 맞춘 소모임이 운영되는 방식이 독특하다.

이등락 회장은 “개인택시 사업은 한 달에 열흘 정도 쉬는데 정기산행 일정 이외의 나머지 9일을 잘 활용하는 것이 육체나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며 “회원중 일부는 거주지나 연령, 성향 등에 따라 소그룹을 만들어 쉬는 날이면 가까운 산행 길에 나선다”고 말했다.

근무일에는 밴드나 단체 카톡 등의 SNS로 정보를 공유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끼리도 나눈다.

“차량 운행 과정에서 목격하는 사고나 공사, 단속 현장을 회원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오늘은 얼마 벌었느니 하는 소소한 얘기도 SNS로 주고 받는다. 택시는



위. 푸름산악회 회원 정기 산행 모습. 아래. 산행 이후에는 회원들간 소통의 자리를 갖는다.

혼자 일하는 직업인데 뜻이 맞는 회원들끼리 소통하면 지루한 것도 덜하고 노동의 피로도 잊을 수 있다”라고 이등락 회장을 말한다.

◆ 여성 회원의 부드러움이 화합에 도움

개인택시업계에서 여성 사업자는 귀하다.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푸름산악회에는 발족 당시 12명이나 되는 여성 회원들이 참여했다.

산이 좋아 뜻을 같이 했지만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 생각이 다름에서 비롯되는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여성 회원들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이 화합에 큰 도움이 된다.

정기산행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로 충당하는데 산행 당일 대부분을 소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버스 대절비용과 식비 같은 기본적인

경비만 회비로 걷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악회 발족 1년 여 만에 500만원이 넘는 적립금이 쌓였다.

산악회를 지지하고 뜻을 같이 하는 내외부 지인들이 찬조하거나 후원한 자금을 모아 놓은 것이 상당한 자산이 되고 있다.

이등락 회장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적립된 자산으로 회원들과 1박2일 정도의 해외 여행을 계획중이다.

“같이 산을 오르는 것이 좋은 것은 잘 타거나 못타거나 상관없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같은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족 1년 만에 적지 않은 회원들이 모였고 그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산행을 통해 서로가 진심으로 대하고 이끌어주는 방법을 배우며 서로 소통하는 모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등락 회장이 그리는 푸름산악회의 모습이다.

(글·김신)

공제경쟁력을 말하다

# 의료연수초급과정 교육현장을 가다.

## 대인보상 담당 직원 대상으로 의료연수 교육 실시

전문 의료지식 함양을 통하여 실무능력을 고취하고 공제조합 보상서비스 개선 및 공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공제조합 보상담당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우리 공제조합은 보상 담당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대인보상 담당 직원들이 풍부한 의료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공제금을 산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의료연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금번 실시한 의료연수초급과정은 단계별 의료연수과정의 입문과정으로써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상외과분야, 척추손상, 두부(뇌)손상 과목을 중심으로 진료기록해설, 자배법상 상해 및 장애, 진단서작성지침, 한의학 기초, 치과손상의 과목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특히 3일의 교육기간 중 첫째날에는 진

료기록해설, 자배법상 상해 및 장애, 진단서 작성지침 과목의 강의를 진행되었는데 본격적인 의학이론 교육에 앞서 교육생들이 기초적인 의학용어와 진료기록지 판독법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배려한 교육 일정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의학이론 또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진료와 교수를 겸하고 있는 전문 강사들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단순 이론강의가 아닌 실사례를 바탕으로 한 토론식 수업이 이루어져 교육참가자들과 상호 소통하며 이해를 높이는 효율적인 교육이 진행되었다.

육운공제조합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 우리 개인택시공제조합은 교육참가자 전원이 우수한 성적으로 과정을 수료하였다. 매 수업 시간 적극적으로 강사에게 의문점을 질문하고 쉬는 시간 사이사이에도 서로 수업시간에 숙지한 내



▲ 교육생들이 수업을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용을 공유하는 직원들을 보며 우리 개인택시공제조합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2018년 한해도 어느새 절반을 지나왔다. 매년 교육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 공제조합 직원들의 열정과 성실함을 보며 그 에너지가 공제조합의 발전과 나아가

개인택시업계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하게 된다.

2018년 한해도 끝까지 현장에서 교육장에서 자신의 발전과 업계의 발전을 위해 굵은 땀을 흘리고 있는 개인택시공제조합 직원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금번 취재를 마무리 했다.

## 2017년도 사고 분석

### 사고율 22.8%·부상자수 5만 2783명 ... 증가세

사고율은 2015년 21.6%에서 2016년 22.1%, 2017년 다시 22.8%로 높아졌고 부상자수도 2015년 4만8456명, 2016년 5만162명에서 2017년 5만2783명으로 증가했다.

사고율 악화는 최종적으로 보험료(공제분담금)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잦은 사고는 조합원 개인의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해 가뜰이나 운행 환경 악화로 수익성이 떨어진 개인택시에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어 무엇보다 안전

운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조합원 모두 각별히 인식해 사고감소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안전 대책으로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는 교통사고 1% 줄이기 목표에 매진합니다.

사고율 1% 감소시 대인은 47억7천만원 절감 효과, 대물은 11억8천만원 절감 효과가 있어 조합원님 모두 1%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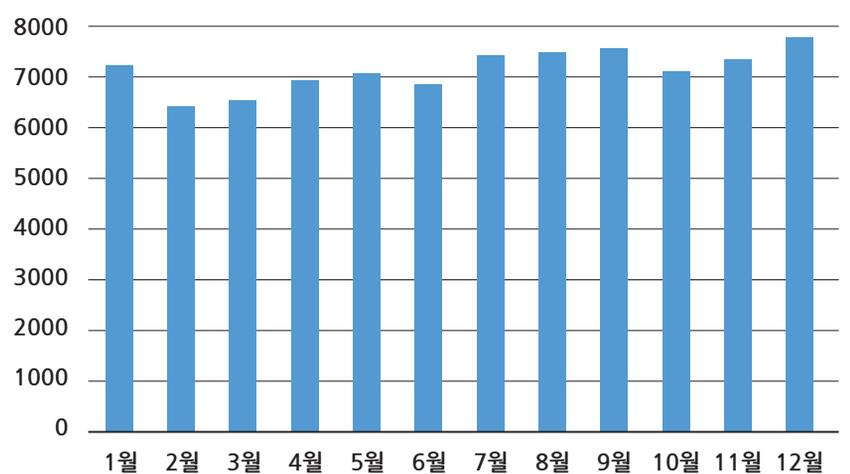
#### | 월별 사고건수

구분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사고건수	7,241	6,422	6,575	6,922	7,054	6,840
구분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사고건수	7,444	7,470	7,577	7,096	7,339	7,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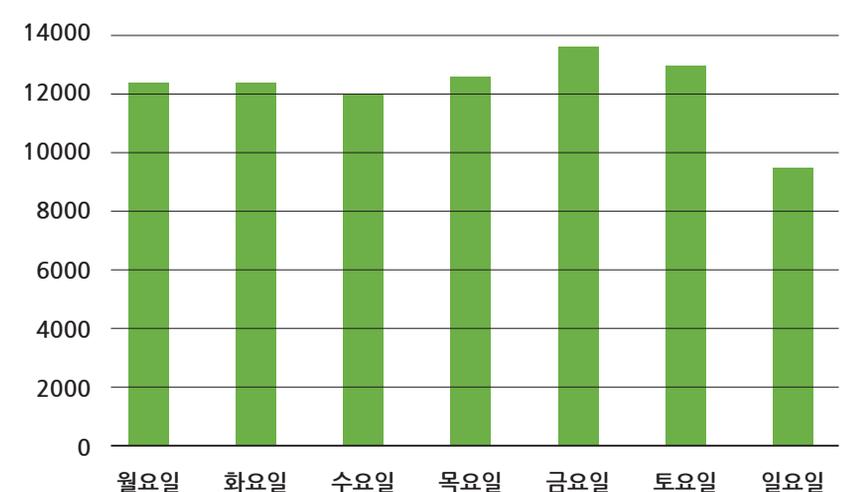
#### | 요일별 사고건수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사고건수	12,460	12,524	11,974	12,571	13,723	13,003	9,545

#### | 월별 사고건수



#### | 요일별 사고건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 단속 예외 기준 정비(規則)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자동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6.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제160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따라 미착용 사유 추가(規則 제31조 제9호)
  - 안전띠 미착용은 운전자의 책임이나, 여객운수업의 경우 승객에게 일일이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강제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
  - 여객운수종사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단속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 마련
- ※ 택시업계의 건의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위해 노력한 경우 단속에서 제외하기로 회신(교통기획과-7020, 16.12.1)

###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생 략)	제31조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현행과 같음)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는 때	8. ----- ----- <u>운전자</u> ----- <u>가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거나</u> -----

# 공제 미지급가입금의 환급

## 공제 가입금 조합원 자격 상실 시 환급 가능 해당되는 前 조합원, 해당 지부에 확인 요망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공제규정에 의하면 모든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은 3만원의 가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한 가입금은 공제조합 본부에서 적립·관리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거나 폐지 및 양도되어 상실

한 경우 공제조합은 조합원에게 가입금을 환급하고 있으며, 사업조합을 비임의 탈퇴하거나 다른 손해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금을 환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은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취소, 양도 및 사업조합을 비임의 탈퇴 하거나 손해보험사의 이탈 이후 공제조합에 통보하지 않아 미지급가입금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후에 비로소 뒤늦게 인지한 공제조합은 해당조합원에게 바로 가입금지급안내문을 송부하고 유선통화를 실시하는 등의 여러 방법을 시도하여 가입금을 환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락처가 변경되고 소재지가 변경되어 연락이 두절된 일부 자격상실 조합원은 해당 조합과 연대 및 지인협조를 통하여 변경된 연락처와 소재지를 파악하고는 있으나 매우 어렵고 힘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가입금의 지급사유가 인지되는 즉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은 지급업무를 간편화 하였고, 또한 연락처와 소재지가 함께 변경되어 연락이 두절됨으로써 장기간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위하여 교통정보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가입금 지급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많은 조합원에게 가입금을 환급하였다. 다만 아직까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고 가입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의 전 조합원은 해당지부에 가입금 환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

# 개인택시공제조합 가입금 환급 신청 공고

우리 공제조합에서는 가입금을 납입한 조합원이 공제가입 자격을 상실(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 폐지 또는 양도)하거나 다른 손해보험사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는 가입금을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금 환급대상이면서 아직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 분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급 신청기간 : 2018. 8. 1. ~ 2019. 1. 31. (6개월)
- 환급 신청금액 : 가입금 3만원
- 환급 신청방법 : ① 유선 신청 : 본인확인 및 본인계좌번호  
② 방문 신청 : 신분증, 본인통장사본 제출
- 환급대상 확인 및 지급처 : 공제조합 가입당시 각 지부 총무(업무) 팀

※ 전국 각 지부 전화번호
·서울지부 (02) 2140-3800
·부산지부 (051) 500-8600
·대구지부 (053) 764-0621
·인천지부 (032) 577-4281
·광주지부 (062) 570-6580
·대전지부 (042) 583-8040/1
·울산지부 (052) 211-2761/3
·경기지부 (031) 240-3300
·강원지부 (033) 242-3652/3
·충북지부 (043) 221-2382/3
·충남지부 (041) 334-8027/8
·전북지부 (063) 214-5951/4
·전남지부 (061) 800-8080
·경북지부 (053) 753-3846/7
·경남지부 (055) 276-0900
·제주지부 (064) 744-2795/6

# { 2018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 }

## 1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간담회 개최

연합회 주관으로 택시업계 노·사 4단체는 자가용(카풀)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 개선, 화물자동차 불법 여객운송행위 근절 개선 등 택시업계 현안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18. 5. 29(화)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직능대표자회의 의장 안민석, 국토교통위원장 조정식, 정춘숙의원 및 택시업계 4단체 임원진과 『택시업계 정책간담회』를 개최 하였으며, 택시업계의 건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 참석

-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정책위의장  
안민석 직능대표자회의 의장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비례대표 정춘숙 의원  
김일환 수석전문위원
- 택시업계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충남개인택시조합이사장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장 등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등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등

◎ 주요내용

자가용(카풀) 불법 운송행위 근절 건의	○ 자가용자동차의 카풀 유상운송을 허용한 입법취지와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불법 유상운송행위의 근거로 악용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삭제
화물자동차 불법 여객운송행위 근절 건의	○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8. 5. 15) 국회 조속히 통과 요망 ○ 최대적재량이 800kg 미만인 자동차에 적재면적 및 승차정원(3인승 이하)에 대한 기준 마련 ○ 현재 등록되어 운행 중인 5인승 화물자동차(픽업트럭)에 대한 단속 근거 신설과 강력 처벌 건의

◎ 간담회 결과

- 자가용(카풀) 불법 운송행위 근절에 대하여 출·퇴근 시간대를 명확히 규정 하도록 하겠음.  
▶ 카풀앱은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임.
- 화물자동차 불법 여객운송행위 근절 개선(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국회통과를 적극 처리하도록 하겠음.

##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발의 (화물자동차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 관련)

지난해부터 픽업트럭(5인승) 등록으로 택시업계와 화물업종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당 연합회를 비롯한 택시노사 4개 단체는 화물 최대 적재량이 800kg 미만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제(3인승 이하) 도입 및 적재면적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하여 국회 여·야 의원을 상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 갑) 등 11인이 화물자동차의 정의조항에 최대적재량이 800kg 미만인 일부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적재면적과 승차 최대인원의 기준을 규정하여 여객과 화물운송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18. 05. 15)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표발의	주요 내용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11인) (2018. 05. 15)	○ 화물자동차의 정의조항에 최대적재량이 800kg 미만인 일부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적재면적과 승차 최대인원의 기준을 규정하여 화물자동차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화물자동차운송업 허가를 받아 불법여객운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 여객운송 및 화물운송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3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 관련 건의

연합회를 비롯한 택시노사 4개 단체는 지난 2018. 6. 22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7월 중에 ▲승합렌터카 공유 O2O 서비스, ▲카셰어링 확대 등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도한바 있어, 이는 국가기간 산업인 철도 연계 교통사업에서 렌터카 사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여 국토교통부에 개선대책 건의와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대응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 관련 건의

□ 현 황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18. 06. 22 주요내용)

《 승합렌터카 공유 O2O 서비스 》

- 승합렌터카 공유 O2O 서비스는 코레일의 경우, 승차권 예매 시 코레일톡에서 제휴상품의 연계교통을 선택, 해당 앱으로 이동한 후 출발지와 목적지, 시간 등 기본적인 사항들을 입력하여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함.

참고 2) 시범사업 대상 역사

구분	분류	대상역	역수	비고
O2O 기반	시범운영	만중, 나주, 익산	3	이지시스 협의

※O2O(Online to Offline)

《 카셰어링 》

- 카셰어링은 이용객이 회원으로 등록된 해당 업체의 앱 또는 웹을 통해 예약하여 이용

참고 2) 시범사업 대상 역사

구분	분류	대상역	역수	비고
카셰어링	확대 예정	천안아산, 오송, 청주, 마산, 정읍, 조치원, 광주, 병점, 경기광주, 양평	10	딜카, 쏘카, 그린카 전용구역(6월말 공개추첨 예정)

□ 문제점

- 렌터카는 등록제로 운영되는 순수민간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제가 어렵지만 택시는 면허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택시는 규제를 받고 있는데도 국가 기간사업인 철도 연계 교통 시범사업에서 택시는 제외되고 있어 렌터카와 경쟁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 렌터카는 신고제이므로 계속 등록대수(66만 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증가 추세에 따라 현재 택시대수(25만대)의 2.6배에 따른 증가로 인하여 택시운송업을 잠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번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으로 인하여 렌터카 업계와 분쟁이 발생됨.
- 심야시간대나 일부 대도시 중심지역에서 렌터카 불법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렌터카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운전자 알선을 일부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에 포함시켜 시행하는 것은 택시운송업종과 마찰만 증가하여 분쟁 발생
- 정부, 철도청 등에서 카셰어링 확대를 통한 철도역사 교통연계 서비스는 공공성이 강한 택시를 제외시키는 모순된 정책임

□ 개선건의

- 렌터카 승합자동차 O2O 서비스 시범사업과 카셰어링 확대 정책은 정부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자치단체의 지역실정의 여건에 따라 시행여부를 판단하도록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승차정원 13인승 이하 승합대형택시를 포함한 택시를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에 포함되도록 요청 함.

### 성명서

#### 정부는 차별적인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8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7월 중에 ▶승합렌터카 공유 O2O 서비스 ▶카셰어링 확대 등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였다.

렌터카와 카셰어링은 순수 민간영역으로 규제가 어렵지만 택시는 면허제로 운영되고 국가로부터 각종 규제와 지시를 받으며 국가의 국토교통정책에 따르고 있는데도,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에서 택시는 제외되고 있어 렌터카 및 카셰어링과 경쟁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또한 국내 렌터카와 카셰어링 서비스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인 진단과 검증 없이 국가 기간 산업에 도입·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교통안전과 생명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우리 택시노사 4개 단체는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의 승합렌터카 공유 서비스와 카셰어링 서비스의 도입·확대를 반대하고, 검증된 교통안전과 국민에게 친숙하고 편리한 공공 교통서비스인 택시를 중심으로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택시를 외면한 렌터카·카셰어링 활성화 방안,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업계 간 마찰과 분쟁 발생해**

택시는 일반 이용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매우 짙은 운송수단이다.

이에 우리 택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국가의 국토교통정책에 순응하며 규제와 지시를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편향적인 렌터카·카셰어링 활성화 정책의 불합리한 차별 대우로 인해 택시의 수요 감소를 가속화시켜 택시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다.

렌터카와 카셰어링은 등록제이므로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증가추세에 따라 택시를 능가하여 택시운송업을 잠식하고 있다. 또한 심야시간대나 일부 대도시 중심지역에서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승합렌터카 공유 서비스(운전자 앞선)를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에 포함시켜 시행하는 것은 업계 간 마찰 및 분쟁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용환경이 불안정한 렌터카·카셰어링 서비스의 피해는 국민에게, 검증된 교통안전과 친숙한 공공 교통 서비스인 택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해야**

렌터카·카셰어링 서비스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그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검증과 대책 없는 시범사업 도입은 그 뒤처리를 국민에게 떠맡기는 것과 같다.

렌터카의 불법영업행위, 카셰어링의 높은 사고율(대물사고 발생률 149.6%, 2016년 보험연구원 자료, 자차와 렌터카는 5.3%, 9.5% 수준), 너무나 쉬운 대여 체계로 인한 운전면허증 사용 관련 문제, 부담스러운 사고 면책금과 휴차료, 주행거리와 이용시간이 길어질수록 비경제적, 무인운영으로 인한 관리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렌터카 승합자동차 O2O 서비스 시범사업과 카셰어링 서비스 확대사업으로 국민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각종 문제점으로 인한 도입 후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우리 택시노사 4개 단체는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의 승합렌터카 공유·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및 확대를 반대한다!

또한 시범사업에 있어 검증된 교통안전과 국민에게 친숙하고 편리한 공공 교통서비스인 택시를 중심으로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을 개선하여 열악한 환경에 놓인 택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승차정원 13인승 이하 승합대형택시를 포함한 택시를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에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토교통부에서 택시업계의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 철회·개선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전국 30만 택시종사자 일동은 강력한 생존권 사수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토교통부에 있음을 천명한다!

**전국 택시 종사자 30만 명은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에서 차별적인 승합렌터카·카셰어링 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철회하고 공공재 성격이 짙은 운송수단인 택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2018. 07. 16.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4 신용카드영세가맹점 및 IC 카드 교체 개선 건의**

연합회는 개인택시는 영세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이면서도 영세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0.8%를 제공 받지 못 하고, 또한 기존에 가입한 대표가맹점(EB, 스마트카드 등)과 체결한 계약의 약정기간이 종료 되거나 약정기간 중 위약금을 지불하고라도 카드가맹점 개설을 하면 국내 8개 카드사는 신규가맹점별로 발생하는 개인택시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영세가맹점 업종에서 제외되고 있어 정부, 국회 등에 개인택시의 영세가맹점 신설을 허용해 줄 것을 적극 건의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황

□ 영세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제3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기준) 제3항에 따르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과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구분하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우대수수료율)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음.

- 1.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가맹점 : 0.8% 이하
- 2.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가맹점 : 1.3% 이하

□ IC카드교체 관련 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부 칙 (제13068호, 2015.1.20.)

- 제4조(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는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문제점

○ 개인택시 업종은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됨에 따른 문제점

- 영세가맹점 서비스를 받으려 가입해도 실질적으로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연 매출액 3억 원 이면서도 영세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0.8%를 제공 받지 못 함.
- 기존에 가입한 대표가맹점(EB, 스마트카드 등)과 체결한 계약의 약정기간이 종료 되거나 약정기간 중 위약금을 지불하고라도 카드가맹점 개설을 하면 국내 8개 카드사는 신규가맹점별로 발생하는 개인택시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영세가맹점 제외
- 신규가맹점으로 판단하여 최고 2.5%의 수수료 율을 최장 6개월 동안 적용하고 있고, 카드단말기 또한 본인이 직접 구매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표가맹점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대표가맹점을 약정기간 내 해지 할 경우 일방적인 손해배상금부과 (50만원~60만원 상당)와 이에 불복할 경우 개인택시사업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배상 소송을 반드시 거쳐야 함.

○ 현행 여신금융전문업법 상에서는 개인택시는 일반가맹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영세가맹점 지위 확보가 어려움

- 금융위원회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국세청으로부터 매출자료를 넘겨받아 등록된 카드가맹점을 영세, 중소, 일반가맹점으로 분류하고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음.
- 개인택시는 대부분 대표가맹점(EB, 스마트카드 등)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영세가맹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영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어 사업경영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카드단말기 구입지원금과 소액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 개선 필요

- 대표가맹점은 카드사와 0.8%로 가맹점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택시와는 2.0% ~ 2.5%로 계약을 체결하여 1.2% ~ 1.8%의 수수료 마진을 취하는 구조임.
- 전국 지자체의 8,000원 미만 소액결제 수수료지원 사업은 대표가맹점 입장에서만 이득이 되고
- 개인택시사업자 입장에서는 영세가맹점과 대표가맹점간의 변별력이 없는 구조임.
-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역 개인택시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가맹점의 이익을 지원하는 구조로 변질.



	⇒ 귀 연합회 소속 가맹점 지원 시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現 기금 조성 목적 및 관련 법령상 지원 대상에 적합하지 않음 ○ 결론 상기 검토의견과 같이, 관련 법령상 '영세'지위 획득 및 단말기 무상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협회에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2018.04.17	○ 금융위원회 방문 - 인천·충북이사장 등 방문 -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지정 및 IC카드 교체 시 재정지원 건의
2018.05.01 / 07.16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의원 간담회 - 인천·충북이사장 등 방문

시운송시장을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 11인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표발의	주요내용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13인) (2018. 04. 12)	○ 택시운송중개사업을 제도화하고 그 이용요금을 정부(또는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시장의 교란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 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발의 (택시운송중개사업 관련)

ICT 기술의 발달로 전화가 아닌 앱을 통해서 택시를 호출하는 시장(일명 택시호출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임. 다만, 기존의 제도로 규제하지 않는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은 새로운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음. 특히, 해당 앱을 이용하여 택시기사가 승객을 선택하는 문제(단거리 승차거부)와 택시 호출앱의 유료화에 따른 이용자들의 택시요금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 등이 우려되는 상황임. 택시 호출앱이 택시운송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그간 별도의 업역이나 제한 없이 운영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여, 국민들 누구나 이용 가능한 택

### 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국회발의 (간이과세 적용의 기준 금액 상향조정)

현행법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납세액 산정 및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영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간이과세와 면세의 기준금액이 최근의 급격한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간이과세 대상자와 면세 대상자의 범위가 사실상 축소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영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갑윤 의원 등 11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표발의	주요내용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11인) (2018. 04. 10)	○ 간이과세 적용의 기준금액을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면세의 기준금액을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간이과세 대상자와 면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세 사업자의 납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건강상식

# 가벼운 운동으로 심폐지구력 향상

## 심폐지구력(cardiovascular endurance)

전신지구력이라고도 하며, 대근 활동을 포함한 신체 활동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장시간에 걸쳐 수행할 수 있는 작업량을 말한다. 이는 가장 중요한 체력 요건

중의 하나로, 필요한 영양분 특히 산소를 근육에 공급하고 장시간의 운동 후 생기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능력을 말한다. 여기에는 심장, 폐장, 혈관의 효율적인 기능이 포함된다.

종류	운동강도	심박수 변동	운동종목
전신지구력 운동	비교적 일정함	일정함	걷기, 조깅, 수영, 사이클, 줄넘기, 크로스컨트리스키, 스케이트, 조정
혼합운동	강·약 혼합	변화함	경기애어로빅, 등산, 테니스, 배드민턴, 스퀘시, 축구, 농구

##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한 운동형태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운동형태는 큰 근육을 사용하고 비교적 장시간 지속되도록 운동 동작이 리듬감 있는 전신지구력 운동형태를 갖도록 해야 한다.

에 무리가 되지 않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예) 걷기, 달리기, 자전거타기, 수영 등. 테니스, 축구, 농구 등과 같은 구기종목도 심폐지구력을 향상에 도움을 준다.

또한 운동형태를 선택할 때에는 재미있어서 운동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으며, 자신의 체력에 알맞아 편하게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부상이 잦은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



## ★ 등산

등산은 심폐 지구력, 근지구력, 균형 감각을 키우고 혈압 조절과 체지방을 분해해주는 효과가 있는 유산소성 운동이다.

평상 시 생활에서는 평지를 걷는 수평이동이 대부분이지만 등산은 수평이동 뿐만 아니라 경사에 따라 수직 이동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지를 걷는 것보다 좀

더 힘들고 숨이 차며 경우에 따라 다리에 근육통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리하지 말고 짧은 거리와 낮은 경사도부터 시작하여 점차 거리와 경사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산행 법

1 초보자일 경우, 20분 걷고 5분 휴식, 또는 30분 걷고 5분 휴식하는 식의 방식이 좋다.

초보자의 경우 급한 마음에 보폭을 너무 넓게벌려 걷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상하운동이 심해져서 쉽게 피로해진다.

보폭은 성인의 경우 보통 75cm, 분당 114보 정도가 적당하며 걸을 때는 밸런스를 유지하여 일정한 리듬으로 걷도록 한다.

2 코와 입을 적절히 사용해서 걷는 동안 호흡이 원활하게 해야 한다. 코로만 호흡하게 되면 산행 중에 필요한 다량의 산소를 모두 흡수 할 수 없다.

3 하산 시에는 걷기가 쉽다고 해서 함부로 달리듯이 내려오면 안 된다. 체중과 배낭의 하중 때문에 무릎관절이나 발목에 갑작스럽게 충격이 가해지면 무릎통증이 생기고 물집 등의 원인이 되며 척추에 충격이 가해진다.

4 하산 시에는 경사가 급할수록 걷기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 시야를 넓게 확보하고 기구의 변화와 이동 목표설정을 하며 내려가야 한다.

## ★ 걷기

걷기 운동은 특별한 장비나 경제적인 투자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유산소성 운동이다.

운동으로 걷기를 할 때는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하여 경쾌하고 약간 빠른 정도까지 속도를 늘리는 것이 좋는데, 이것은 걷는 사람의 운동 수준에 따라 조절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운동 시에는 보폭을 자신의 신장에서

100을 뺀 정도의 너비로 하여 50~100m/분 정도의 속도로 걷는것이 적당하다.

보폭이 너무 넓을 경우 근육에 무리가 될 수 있으며, 좀 더 많은 근육이 동원되고 하더라도 걷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운동 효과에는 차

이가 없기 때문이다.

걷기는 전신운동으로 만약 하루의 만보 걷기를 매일 실시할 경우에는 건강 성인의 주당 운동 목표인 2000kcal 소모가 가능하다.

〈자료:국민체육진흥공단〉

# 기대 이상의 놀라운 변화 쏘나타 뉴 라이즈-택시



## 혁신적인 스타일 개선

완전히 달라진 외장과 고급감이 개선된 내장 디자인



캐스캐이딩 그릴 & 세로형 LED DRL    편의를 고려한 인간공학적 설계

## 신규 편의사양 확대

택시 운전자와 탑승객을 고려한 편의사양 확대



8인치 내비게이션(폰 커넥티비티)    듀얼 풀오토 에어컨(공기 청정 모드)

## 최고 연비의 안정적인 주행 성능

新 변속기 적용으로 중형택시 최고 연비 확보



2세대 6단 자동변속기    혁신적인 차체강성